

# 목 차

## 2012년도 해외(미국) 연수 보고서



## 서 대 문 구 의 회

|                       |      |
|-----------------------|------|
| <b>I. 해외연수 계획</b>     |      |
| 1. 해외연수 개요            | ~ 1  |
| 2. 연수단 구성 및 업무 분담표    | ~ 2  |
| 3. 연수 일정표             | ~ 3  |
| <b>II. 방문도시 일반현황</b>  |      |
| 1. 뉴욕                 | ~ 4  |
| 2. 워싱턴                | ~ 6  |
| <b>III. 주요기관 방문</b>   |      |
| 1. 허드슨뷰 헬스케어 센터       | ~ 10 |
| 2. 스파클스 차일드케어 센터      | ~ 13 |
| 3. 어반 서비스 워싱턴 디씨      | ~ 16 |
| <b>IV. 주요 도시문화 탐방</b> |      |
| 1. 뉴욕 공립도서관           | ~ 18 |
| 2. 하이라인 파크            | ~ 20 |
| 3. 타임스퀘어              | ~ 22 |
| 4. 자유의 종              | ~ 24 |
| 5. 독립기념관              | ~ 25 |
| 6. 링컨 기념관             | ~ 26 |
| 7. 스미소니언 박물관          | ~ 28 |
| 8.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        | ~ 29 |
| 9. 알링턴 국립묘지           | ~ 30 |
| 10. 국회 도서관            | ~ 31 |

## 1. 해 외 연 수 개 요

1. 여 행 국 : 미국(동부)
2. 여행목적 : 해외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복지, 문화, 도시환경 등 비교 시찰
3. 여행기간 : 2012. 10. 4 ~ 2012. 10. 11(6박8일)
4. 여행자 구성 : 총 14명(의원 8, 사무국 5, 구청 1)
5. 주요 방문지
  - 허드슨뷰 헬스케어센터 (노인 의료시설)
  - 스파클스 차일드케어 센터 (아동 보육시설)
  - 어반 서비스 워싱턴 디씨  
(워싱턴 디씨의 쓰레기 처리 관련 공공기관)
  - 첼시마켓, 하이라인파크, 타임스퀘어 등 뉴욕 탐방
  - 백악관, 국회의사당,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등 워싱턴 탐방

## 2. 연수단 구성 및 업무 분담표

| 구분 | 성명          |
|----|-------------|
| 고문 | 변복진 의장      |
| 단장 | 오성자 부의장     |
| 간사 | 김재관 의회운영위원장 |

| 분담 업무         | 의원 성명                | 수행 직원 성명 |
|---------------|----------------------|----------|
| 지방자치, 의회운영 전반 | 변복진, 김재관             | 김수규, 임화택 |
| 행정복지 전반       | 김영원, 김재관<br>서정순, 오성자 | 조영술, 권현정 |
| 재정건설 전반       | 류상호, 김호진<br>김다순      | 이옥희, 강정현 |

| 수행 직원 |     | 수 행 업 무                     | 비고 |
|-------|-----|-----------------------------|----|
| 직급    | 성명  |                             |    |
| 행정4급  | 김수규 | 의원 수행업무 세부 추진사항 총괄          |    |
| 행정6급  | 임화택 | 예산집행 및 정산                   |    |
| 행정7급  | 조영술 | 의회홍보 및 방문기관 협력, 의전, 공식행사 보좌 |    |
| 행정7급  | 권현정 | 방문지 자료수집, 방문기관 간담회 기록       |    |
| 행정8급  | 이옥희 |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 수집, 방문지 촬영      |    |
| 행정8급  | 강정현 | 방문지 자료 수입, 방문지 촬영           |    |

### 3. 연수 일정표

| 일자                  | 행선지   | 교통편     | 시간    | 여 행 일 정                                                                                                                  | 식 사                     |
|---------------------|-------|---------|-------|--------------------------------------------------------------------------------------------------------------------------|-------------------------|
| 제1일<br>10/4<br>(목)  | 인천    | DL 158  | 17:20 | 인천국제공항 출발                                                                                                                |                         |
|                     | 디트로이트 |         | 17:20 | 디트로이트공항 도착                                                                                                               |                         |
|                     |       | DL 5142 | 21:30 | 디트로이트공항 출발                                                                                                               |                         |
|                     | 뉴욕    | 전용차량    | 23:22 | 뉴욕공항 도착 후 입국심사 및 세관신고<br>호텔 이동<br>HOTEL : 코트야드 파라무스 호텔                                                                   |                         |
| 제2일<br>10/5<br>(금)  | 뉴욕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br>허드슨뷰 헬스케어센터 견학<br>맨하탄으로 이동<br>첼시마켓, 하이라인파크 탐방<br>석식 후 호텔 투숙<br>HOTEL : 코트야드 파라무스 호텔                             | 조:호텔식<br>중:현지식<br>석:한 식 |
|                     |       |         |       |                                                                                                                          |                         |
|                     |       |         |       |                                                                                                                          |                         |
|                     |       |         |       |                                                                                                                          |                         |
| 제3일<br>10/6<br>(토)  | 뉴욕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br>타임스퀘어 등 맨하탄 도시문화 탐방<br>석식 후 호텔 투숙<br>HOTEL : 코트야드 파라무스 호텔                                                       | 조:호텔식<br>중:현지식<br>석:한 식 |
|                     |       |         |       |                                                                                                                          |                         |
|                     |       |         |       |                                                                                                                          |                         |
|                     |       |         |       |                                                                                                                          |                         |
| 제4일<br>10/7<br>(일)  | 뉴욕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br>프린스턴으로 이동, 프린스턴대학교 캠퍼스 탐방<br>필라델피아로 이동, 자유의 종, 독립기념관 등 시찰<br>워싱턴으로 이동<br>석식 후 호텔 투숙<br>HOTEL : 스프링힐스 스위트 개이더스버그 | 조:호텔식<br>중:현지식<br>석:한 식 |
|                     |       |         |       |                                                                                                                          |                         |
|                     |       |         |       |                                                                                                                          |                         |
|                     |       |         |       |                                                                                                                          |                         |
| 제5일<br>10/8<br>(월)  | 뉴욕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br>스파클스 차일드 케어 견학<br>백악관, 국회의사당, 제퍼슨기념관, 링컨기념관 등 시찰<br>석식 후 호텔 투숙<br>HOTEL : 스프링힐스 스위트 개이더스버그                      | 조:호텔식<br>중:현지식<br>석:한 식 |
|                     |       |         |       |                                                                                                                          |                         |
|                     |       |         |       |                                                                                                                          |                         |
|                     |       |         |       |                                                                                                                          |                         |
| 제6일<br>10/9<br>(화)  | 워싱턴   | 전용차량    | 전일    | 호텔 조식<br>워싱턴 쓰레기처리장 견학<br>스미소니언박물관, 한국전참전비, 알링턴국립묘지 등<br>석식 후 호텔 투숙<br>HOTEL : 스프링힐스 스위트 개이더스버그                          | 조:호텔식<br>중:현지식<br>석:한 식 |
|                     |       |         |       |                                                                                                                          |                         |
|                     |       |         |       |                                                                                                                          |                         |
|                     |       |         |       |                                                                                                                          |                         |
| 제7일<br>10/10<br>(수) | 워싱턴   | 전용차량    |       | 호텔 조식 후 공항으로 이동                                                                                                          | 조:자유식                   |
|                     | 디트로이트 | DL 5382 | 07:30 | 워싱턴 출발                                                                                                                   |                         |
|                     |       |         | 09:07 | 디트로이트공항 도착                                                                                                               |                         |
|                     |       | DL 159  | 12:15 | 디트로이트 공항 출발                                                                                                              |                         |
| 제8일<br>10/11<br>(목) | 인천    |         | 15:20 | 인천국제공항 도착                                                                                                                |                         |

### II. 방문 도시 일반현황

#### 1. 뉴욕

뉴욕은 1790년 이후 미국의 수도 타이틀을 워싱턴에 넘겨줬지만 명실상부한 미국 최대의 도시로서 경제와 금융, 문화와 예술,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 서울보다 두 배 정도 큰 면적의 뉴욕 시에는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뉴욕은 정확히 표현하자면 뉴욕 주 내의 뉴욕 시 그리고 그 속에서도 맨해튼을 의미한다. 뉴욕 시에는 우리의 구처럼 5개의 자치구 즉,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있다.

#### 1)맨해튼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이자 뉴욕의 대표 명소들이 모여 있다. 쇼핑의 중심인 5번가, 미트패킹, 소호와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뮤지컬의 천국 브로드웨이, 뉴욕의 심장 센트럴 파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이 속해 있음.

#### 2)브루클린

뉴욕 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한적한 주택지역이 대부분.

#### 3)퀸스

5개의 자치구 중 가장 넓은 곳으로 많은 이민자들이 터전을 일구며 사는 곳. 중국인, 남미계, 한국인 등이 많이 거주하며 뉴욕의 관문인 jfk 공항과 라파디아 공항이 위치.

#### 4)브롱크스

양키즈 스타디움 등 대형 시설물이 많으며, 뉴욕 시와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이라 교통이 발달. 흑인과 히스패닉,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주로 거주.

#### 5)스테이튼 아일랜드

뉴욕의 중산층이 사는 한적한 거주지가 대부분이며, 자유의 여신상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

## 2. 워싱턴

정식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이며, 워싱턴 D.C.로 약칭된다. 포토맥강(江) 연안의 메릴랜드주(州)와 버지니아주(州) 사이에 있는 연방직할지이며, 어느 주에도 속해 있지 않다. 프랑스인 피에르 샤를 랑팡의 설계로 건설된 계획도시여서 백악관과 워싱턴 물을 중심으로 도시 자체가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시가지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관저인 백악관을 중심으로 넓은 도로들이 방사상으로 뻗어 있으며, 도로들은 바둑판 모양으로 교차되어 있다.



1790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수도로 지정되었고, 1878년 조지타운이 워싱턴의 일부가 된 이래 새로운 국가의 영구 행정부 소재지로 선정된 컬럼비아 특별구와 공존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북쪽에 있는 볼티모어시(市)와 함께 670만 명의 통합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입법·행정·사법부의 중심이며, 산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제 중심은 주로 관공서 관련업무이며, 교통시설은 지하철이 많은 외곽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이웃한 메릴랜드주·버지니아주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워싱턴은 특이하게도 인구 구성원의 70% 이상이 흑인이다. 연방정부기관들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이지만, 동시에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빈부의 격차와 학력의 격차가 커 대도시권에 사는 주민들은 학력과 소득이 높은 반면, 시 안에 사는 주민들 중에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장애자·노인 등이 많다.

명소로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을 비롯하여 역사적으로 진귀한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국회도서관, 각종 박물관이 있는 스미스소니언협회, 링컨기념관, 제퍼슨기념관, 워싱턴기념탑, 케네디 대통령이 묻힌 알링턴 국립묘지 등이 있다. 그 밖에 국립미술관·국립공문서보관소·국립자연사박물관·국립 아메리카 역사박물관·국립항공우주박물관 등이 있다. 철도와 항공의 중심지로는 유니언역·로널드 리건 워싱턴 국립공항·덜레스 국제공항 등이 있으며, 포트맥네어·포트마이어·앤드루스 공군기지·볼링 공군기지 등의 군사시설이 인근에 있다.



### Ⅲ. 주요기관 방문

#### 1. HUDSON VIEW CARE & REHAB CENTER

가. 방문일시 : 2012. 10. 5(금) 10:00~

나. 방문개요

##### □ 주요 기능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의 간호와 재활을 24시간 케어하기 위하여 개설된 센터

##### □ 시설

다민족 국가답게 각 총별로 각각 다른 민족을 구분하여 생활하게 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예를 들어 한 개 층 전체에는 뉴욕주나 뉴저지주의 한인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고유한 액티비티나 명절 보내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 노인들은 생활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함.

##### □ 입소 대상

단기 치료의 경우에는 병이나 사고로 인한 간병, 재활치료 등을 위한 1개월~6개월의 입소가 일반적이며, 장기 치료의 경우에는 중풍, 치매, 당뇨 등을 비롯하여 골다공증, 관절염 등 각종 노인성 만성질환으로 일상 생활 보조가 필요하거나 가정에서 간호가 어려운 노인들이 대상이라고 함.

주로 1년 이상 장기 거주자들이 대부분이며 55세 이상만 입소 가능하다고 함.

##### □ 직원 구성

직원들은 모두 물리치료사, 영양사, CNA(CERTIFIED NURSING ASSOCIATION)에서 취득한 요양 보호사 등의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

##### □ 입소 판정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로 요양 등급 판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곳은 병원 진료 기록을 기준으로 센터에서 자체 판단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랐음.

그 밖에 우리나라와 같이 방문 요양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입소 비용을 주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부담하고 있다고 함.

##### □ 방문 후기

미국의 노인복지는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광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와병상태에 있는 부모를 자녀들의 집으로 모셔다가 시중을 들어주는 경우를 거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노인의 경우는 요양시설 또는 병원의 신세를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미국은 의료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므로 대신 경비가 덜 드는 요양시설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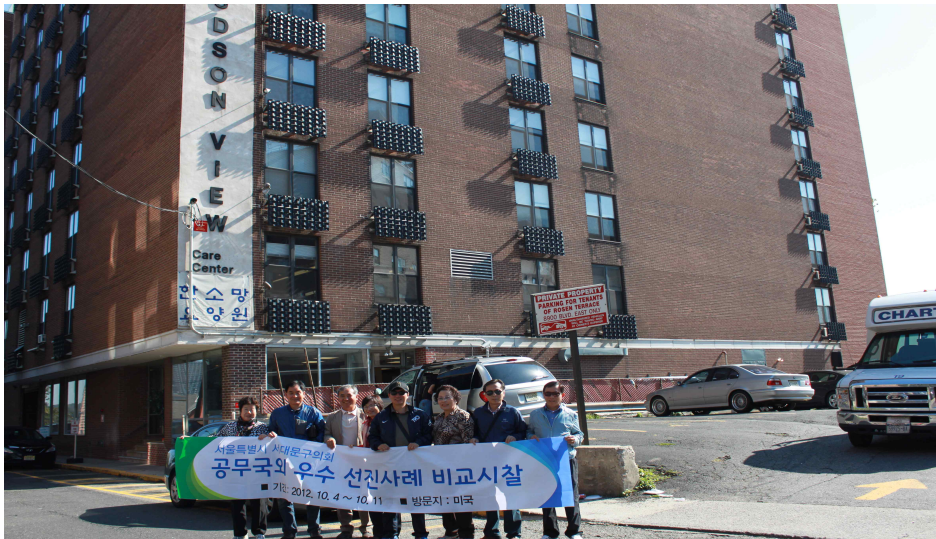
또한 의료비의 보완을 위해서 마련된 것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라고 함.

즉, 메디케어는 조세부담에 의해서 운영되는 의료보호 제도이고, 메디케이드는 의료보험제도로써 주로 60세 이상 노인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26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에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노인복지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료 전문가 양성 과정에 재정을 지원하고, 특히 노인 의학, 노인 치과학, 노인 정신의학 등을 지원하고 5,000만 달러 이상을 의대 또는 의료기관 10여 군데에 지원하고 있다고 함.

우리나라도 요양 보호사 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 관련, 전문 인력 교육 훈련 등에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2. SPARKLES CHILD CARE CENTER

1) 방문일시 : 2012. 10. 9(화) 10:00 ~

2) 방문개요

### □ 시설

SPARKLES CHILD CARE CENTER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을 포함하여 총 4개의 분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함.

### □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방과후 교실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은 출생한 지 6주 이후의 신생아부터 12세 아동까지라고 함.

센터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 이를 초과하여 아동을 맡길 경우 분당 1불씩 계산하여 납부한다고 함.

### □ 보육료

아동의 연령에 따라 주당 85불 ~ 385불을 매주 납부한다고 하며, 카운티에서 지원을 받는 가정 외에는 모두 부모의 개인 부담으로 납부한다고 함.

### □ 정원

반별 정원은 생후 6주부터 1년까지의 신생아는 13명이며, 나머지는 15~20명이고, 교사 1인당 정원은 신생아는 4명까지 그리고 그 외 아동은 8명까지이며 12세 아동은 8명부터 12명까지 관리할 수 있다고 함. 이에 대한 규정은 각각의 주마다 다르다고 함.

### □ 기타

아동을 위한 조리 자격증을 별도로 소유한 자가 만든 음식을 외부에서 반입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종교상의 사유나 특이체질을 가진 경우에는 물론 가정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먹을 수 있음.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잉글리쉬와 스페니쉬이므로 이 두 언어를 함께 교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부모가 항상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

### □ 방문 후기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이른 시간인 새벽 6시부터 문을 열므로 조기 출근하는 부모들이 아동을 일찍 맡기고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음.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수업이 끝난 후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러 오지 못하는 경우 아동을 혼자 귀가시키지 않고 부모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학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의 자가용으로 하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제공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많으므로 아동이 방과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이로 인해 때로 범칙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학교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여 아동들이 유익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

또한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국가이므로 인종차별 문제에 매우 민감하여, 방문시 우리 일행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의 국적 분포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답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문화적 차이를 느꼈음.

미국의 보육시설의 크게 네 가지 유형은, 1)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보육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2) 보육자의 집에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시설, 3) 유아의 집에 와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 보육, 4) 친척, 친구, 이웃에 의한 보육으로 나눈다고 한다.

미국은 보육의 일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고, 정부의 보육지원 정책은 주로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다고 함.



### 3. URBAN SERVICE WASHINGTON DC

1) 방문일시 : 2012. 10. 9(화)

2) 방문개요

□ 주요 업무

1972년 설립되어 워싱턴 DC의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의 종합폐기물을 관리해주는 곳으로, 주요 업무는 쓰레기 재활용, 도로 청소, 일회용품 분해, 환경 교육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

□ 재활용 관련

2005년 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시민들이 재활용에 대한 개념이 매우 미약하였으나 지금은 점차 호응이 높아가고 있으며, 매월 워싱턴 DC의 일반 가정과 소규모 영업장 등의 총11,000톤의 쓰레기를 모아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음.

종이나 알루미늄 캔 등이 재활용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재료이며 우리는 재활용되기에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함.

재활용되지 않는 나머지 쓰레기는 소각 처리하며 이때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로 발생시켜 사용한다고 함.

□ 청소 전반

총 380명의 청소원들이 워싱턴 DC의 거리를 청소하고 있으며 주1회 총 4,500개의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고 함.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쓰레기 수거 차량 자체에 쓰레기의 무게를 측정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있으며, 매립장에 들어갈 때에도 물론 다시 한 번 측정을 한다고 함.

또한 거리의 벽의 낙서를 지우는 일도 하고 있으며, 특히 예술가들을 위해서 매년 벽화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벽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 있었음.

#### □ 제설 작업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철 제설대책의 경우, 자기 집 앞은 스스로 눈을 치우고 그 외 도로에 대해서 시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유와 임대 합쳐서 총 250대의 제설차량을 활용하고 있다고 함.

워싱턴 DC의 강설량은 뉴욕의 1/2로서 연간 15인치 정도라고 하며, 이곳의 주민들은 눈이 오면, 완벽히 제설이 될 때까지 거의 모든 주민들이 아예 운전을 하지 않고 외출도 자제한다고 함.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염화칼슘을 이용하여 도로의 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하여 제설을 한다고 함.

#### □ 방문 후기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 DC의 쓰레기 처리 비용은 모두 세금에서 운영된다고 함.

따라서 굳이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되도록 적게 배출하려는 노력도 덜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에도 돈을 주고 비닐 포장 봉투를 구입하는데, 미국은 무료로 봉투에 마음껏 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닐 봉투의 남용과 이로 인한 환경훼손이 우려되었음.

자타공인 선진국이라 하는 미국이지만, 분리수거와 재활용 정책은 아직 많이 진전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며, 당장은 귀찮더라도 최대한 분리하여 배출,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것이 결국 우리 인류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나라중의 하나인 미국이 가장 먼저 나서서 저에너지, 저탄소 운동에 앞장서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한 듯 보여진다.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IV. 주요 도시문화 탐방

### 1. 뉴욕 공립도서관 (THE NEW YORK PUBLIC LIBRARY)

뉴욕 공립 도서관은 미국 국회도서관, 하버드대 도서관과 함께 미국의 3대 도서관에 꼽히며 세계 5대 도서관 중의 하나이기도 함.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도서를 일반 열람실에 보관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므로 각자 원하는 책을 사서에게 신청하여 교부받는 도서 대출방식이 우리나라와 가장 크게 달랐음.

또한 도서관 건립 비용 천억불이 모두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 특징이며, 뛰어난 조형미 덕분에 결혼식 장소로도 많이 애용되며 2, 3층에 전시실이 있어 사진, 회화 등의 전시회도 많이 열리는 등 단지 도서관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타 도서관과 다른 점이라고 느꼈음.



## 2. 하이라인파크

오래되어 사용하지 않는 기차역을 개조해서 만든 공원.

2009년 오픈한 하이라인 파크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공사를 위한 계획만 10년 이상을 거쳐 3년 동안 공사를 한 끝에 완성되었다.

지상에서 10미터 정도의 높이에 있던 옛 철도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총 1.5마일의 아주 특별한 공원으로서 이 철길은 1930년대까지 화물운송을 위해 세워진 철길이라고 한다.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하이라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 시민공원으로 재탄생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무조건 옛 건물을 철거하려고만 하지 말고 기존의 건물을 이용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3. 타임스퀘어 거리(맨해튼 중심부에 있는 변화가)

1904년 뉴욕 타임즈 본사가 이전해 오면서 타임즈 스퀘어로 불리움.

19세기 말 타임스 스퀘어는 말 거래업자, 마구간, 마차 등으로 붐비던 곳이었는 데, 1899년 오스카 해머슈타인이 이곳에 최초로 극장을 세우면서 브로드웨이 공연문화가 시작되었다. 타임스 스퀘어와 인근 지역은 공연장, 극장, 상점, 뉴스 가판대, 술집, 음식점 등이 집중되어 미국에서 가장 변화하고 분주적인 변화가가 되었다.

타임스 스퀘어가 지금에 모습을 갖추기 이전인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범죄 소굴이었으며, 성인영화관, 성인용품 상점, 스트립스 공연장이 즐비하던 곳이었다. 하지만 뉴욕주와 시 당국은 재개발을 추진하였고, 오늘날 같이 많은 새로운 공연장, 호텔, 음식점, 대규모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재정비되었다.

뉴욕 주와 정부는 타임스 스퀘어 재개발 계획을 1982년에 처음으로 수립하였다. 극장밀집지역을 제외하고 평지처럼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4개의 초고층건물, 대형시장, 호텔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정치인이나 건설회사에게는 환영이 되었지만, 뉴욕시민들에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결국 비판자들과 정치인, 건설회사와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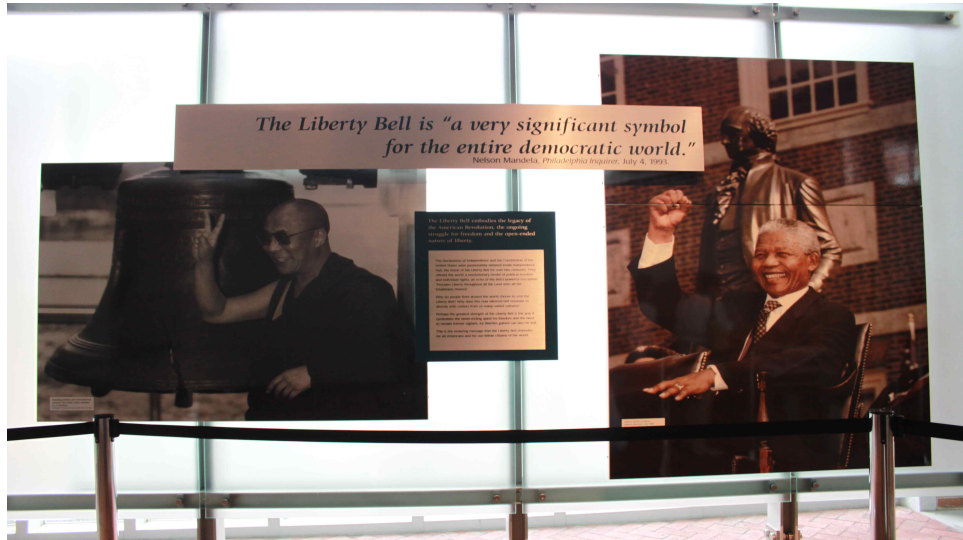
그리고 1990년 마침내 뉴욕 주 정부는 44개의 법원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재개발에 돌입하게 되었다. 1993년 재개발계획이 확정되었고, 1995년에 1,140만 달러를 투입해 청소년용 전용극장인 뉴 빅토리 극장이 개장했다. 이 청소년 극장이 개장함으로써 150개 이상인 성인용품 가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다.

타임스 스퀘어 재개발 계획은 건축가 로버트 스톤, 청소년 극장의 소유주 월트 디즈니사(社)의 공이 컸다. 이로 인해 디즈니를 필두로 건전한 업체의 입주가 쇄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 4. 자유의 종 (독립선언을 알린 종이라는 상징적인 지위를 얻은 종)



미국 독립기념관 광장 가운데의 유리 전시관에 보존되어 있는 종.

자유의 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종이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자유의 상징이다. 자유의 종이라는 이름은 노예 제도로부터 해방을 얻어내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하면서 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았던 노예폐지론자들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이 종은 그들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인 자유 지(誌) 1837년 호에도 나타난다. 그전에는 종이 걸려 있는 곳의 이름을 따서 의회 의사당 종이라 불렀다(지금 이곳은 인디펜던스 홀이라 불린다). 자유의 종은 또한 1775년에서 1783년까지 계속된 미국 독립전쟁의 상징이기도 하며, 미국이 대영제국으로부터 얻어낸 독립과 연관되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종은 펜실베이니아 지방 의회가 의회 의사당에 걸기 위해 제작을 요청한 것이었다. 처음 것은 런던의 화이트채플 주조소에서 만들어져 1752년에 조심스럽게 필라델피아까지 운송되었다. 1753년에야 비로소 쳐 보았는데, 종은 깨져 버렸고 모든 이들이 실망을 금치 못했다. 다시 주조하기 위하여 종을 두 명의 필라델피아 주조소 직원인 존 스토크와 존 패스에게 보냈고, 이들은 종을 두 차례 다시 주조했다.

결국 화이트 채플 주조소에 이를 대신할 종을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 의회 의사당의 꼭대기 탑으로 쫓겨났다. 스토크와 패스가 만든 마지막 종은 의회 의사당 뽕족탑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알려진 자유의 종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종을 울렸으며, 아마 가장 유명한 것은 시민들에게 최초로 독립 선언문이 낭독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종을 쳤던 1776년 7월 8일일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종에는 여러 차례 금이 갔으며 계속해서 이를 고쳐 왔다. 마침내 1846년 2월, 조지 워싱턴의 탄생을 기념하여 울리는 자리에서 자유의 종은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깨졌고, 1852년 뽕족탑에서 완전히 치워졌다. 지금 파빌리온에서 볼 수 있는 자유의 종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종소리로 알려 왔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연결 고리로 남아 있다.

“자유의 종은 모든 민주주의 세계의 매우 중요한 상징이다”

-前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

## 5. 미국 독립기념관(인디펜던스 홀)

1776년 7월 4일 제퍼슨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이자 제2차 대륙회의의 집회장으로 이용된 역사적인 건축물.

필라델피아가 임시 정부의 수도였던 1790년부터 1800년까지 인디펜던스 홀은 정부청사로는 쓰이지 않았으며 이때 이미 여기저기가 파손되어 헐릴 예정이었지만, 1811년 국가를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

1820년대에는 이미 독립혁명의 성지가 되어 종탑도 복구되고 자유의 종이 매달렸다.

1950년 미국 정부는 인디펜던스 홀을 사들여 내부와 외부를 모두 1780년대 모습과 유사하게 복원하였다.

방문객 센터와 새로 지은 자유의 종 파빌리온이 더해져 인디펜던스 홀은 현재 필라델피아의 국립 인디펜던스 파크의 중심이다.



## 6. 링컨 기념관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워싱턴 DC에 위치해있으며, 1922년에 완공됨.

미국 화폐 1센트의 뒷면과 5달러 지폐의 뒷면에 실려 있는 곳.

입장료는 없으며 내부에는 높이가 6미터에 이르는 링컨의 좌상과 벽에 새겨진 그 유명한 게츠버그의 연설문(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등이 있음.



## 7. 스미소니언 국립 자연사박물관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 10대 박물관으로서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의 기부금 55만 달러를 기증받아 1846년 설립된 종합 박물관,

총 1억 3650만점을 소장하고 있는 이곳은 미국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물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다락방이라는 별칭을 보유.

초창기 인류의 기원, 세계 문화의 발전, 고대와 현대의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곤충 및 해양 생물을 전시.

영화 <박물관이 살아 있다 2>의 배경이 되었던 곳.





## 8. 워싱턴 한국전 참전비



첫 번째 사진에서 보듯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병사 19개 동상이 판초우의를 입고 있는데, 해가 떠서 그림자가 비치면 모두 38인이 되어 38선을 의미한다고 함.

이곳에서 우리 연수단은 이들의 영혼을 기리며 다함께 경건하게 묵념의 시간을 잠시 갖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간을 미리 알았더라면 꽃다발을 준비해 올 것을 그랬다는 아쉬운 생각과 함께.....

## 9. 알링턴 국립묘지



전사한 미군과 유명을 달리한 국가원수 등을 안장한 공원 같은 묘지로서 이 곳의 근무병 교대의식도 볼거리로 유명함.

국립묘지 안에 투어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 10. 국회 도서관 (THE LIBRARY OF CONGRESS)

미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서 미국 정치의 중심지인 미국 국회 의사당과 미국 연방법원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 자체가 하나의 조각품처럼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 외벽에는 5명의 유명 인물들의 조각이 달려 있는데 그 중 가운데에 있는 인물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며 건물의 이름은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의 이름을 따와서 붙여졌다고 함.

9.11 이후 여타 공공기관처럼 입구를 들어서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소지품 검사를 받아야 함.

도서관 내부 역시 고풍스럽고 화려한 조각상들로 채워져 있으며, 2층 중앙홀을 중심으로 열람실이 동, 서, 남, 북으로 위치해 있다.

규모면에서는 최대를 자랑하지만 다른 도서관들과 달리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극히 일부분이며, 도서관 자체의 멋스러움과 국회 도서관이 가지는 의미 등은 미국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부터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 - 선진 지방자치제도 등의 비교사찰을 위한 2012년도 해외(미국 동부) 연수를 마치며 -

지난해 우리 서대문구의회는 미국 서부 연수에 이어 올해는 총 8명의 의원들이 함께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동부 연수를 다녀오게 되었다.

이번 연수는 특히 노인과 아동의 복지시설, 쓰레기 처리, 도서관 등을 중점적으로 둘러보는 동시에 헬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등 시설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난 곳들 그리고 워싱턴 DC의 역사적인 기념시설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국은 우리보다 월등히 부강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복지정책, 쓰레기 처리 정책 등에 있어서 어떤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적인 면이 있음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국은 건물 등 모든 옛 것을 되도록 최대한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별하다. 즉,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동시에 그 곁에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는 최신의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서울의 공간과 문화를 통해 낡고 오래된 것 속에서 우리의 창조적 미래를 위한 동력을 발견, 그 정신의 지속가능성을 전파하는 데에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6박 8일간의 짧다면 짧은 일정 속에 이번 미국 동부 연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수행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의 인식과 견해를 더욱 넓혀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의 발전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2년 10월  
서대문구의회 의장 변 녹 진